월요광장

사립미술관의 공공적 가치

김 찬 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

고흥군 영남면에 가면 남포미술관이 있다. 지난 2012년 필자의 남포미술관 첫 방문길은 많은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인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의 수혜공간이었던 그 곳은 가장 오지에 있었던 관계로 운영 점검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우연히 펼쳐본 중앙지의 사회면에서 미술관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소록도 한센인들의 작품전을 기획하고 전시한다는 소식이었다. 꽤 넓은 지면이 할애된 기사의 내용은 감동적이다 못해 다소 충격이었다.

국립소록도병원 로비에서 개최된 이 행사를 통해 한센인들은 자신들의 생애 최초의 전시를 열게 되었고, 주민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었다.

전시회에는 신체적 한계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출품자들의 손에 붓을 묶어 그린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다고 한다.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불가능하며 무모한 짓이라고 했던 이 전시프로젝트가 남포미술관에 의해 구현되었던 것이다.

순천역에 내려 버스와 택시를 타고 힘들게 찾아들어간 미술관은 관장의 선친이 운영하던 공민학교를 미술관으로 개조한 아담한 학교 건물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중앙의 유명 조각가들의 전시를 준비 중이었고 서울서도 잘나가는 바쁜 조각가들이 직접 내려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수준의 전시를 위해서는 경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다.

작가들은 관장의 열정에 감동하여 자신들이 직접 작품을 운송하는 등 거의 실비로 전시에 응하였다고 했다. 하룻밤을 묵으며 확인하였던 것은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관장이 머슴처럼 손수 주변의 풀을 베고 가족들 모두가 개관준비에 임한다는 것이다.

오지인 관계로 큐레이터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 인력의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전시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다.

필자의 우려는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 이후 필자는 미술관의 부족한 전시기획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의 우수한 큐레이터를 소개하여 국제교류전을 개최하거나 우주센터와 연관된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토록 자문하였다.

미술관의 열정적 활동은 중앙에도 알려져 국립현대미술관장까지 참여하는 전국 미술관장 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미술관 활동의 가장 큰 수확은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된 벽화프로젝트이다. 작가들의 재능 기부와 크라우드 펀드로 조성된 이 프로젝트는 소록도 주민들의 삶과 희망을 대형벽화로 제작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구현은 소록도의 또 다른 아이콘이 되었고, 한국 공공미술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미술관은 이달 말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본격적인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 한다. 호남 남종화의 거두인 허백련, 오지호, 수화 김환기, 천경자와 같은 대가들과 호남 최초의 서양화가인 김홍식 등 호남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작품을 빌어오는 등 본격적인 학예적 연구를 바탕으로 호남미술의 정체성을 복원하고자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실 이러한 전시는 개인미술관 보다는 도립미술관 수준에서 기획이어야 마땅할 것인데, 재정도 열악한 작은 사립미술관에서 이러한 노력과 열정을 보이고 있음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열악한 여건이지만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수행하는 공공적 프로젝트는 공공미술관보다 더 값진 의미를 가지며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새봄 그들의 작은 몸짓에 우리의 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3월 31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기 고

포스트 유니버시아드를 생각하며

김 윤 석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

더 이상 메가 스포츠 대회는 그 자체로 경제효과를 증폭시키는 매력적인 재화가 아니다. 한마디로 위기다. 이 시점에서 1980년, 올림픽의 재정위기 시에 수장이 되어 올림픽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7대 IOC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와 지난해 제9대 위원장이 된 토마스 바흐의 응전을 생각해본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림픽이 직면한 도전에는 공통점이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개최 부담이 커지면서 올림픽은 개최도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물론 1980년 사마란치 시절에는 IOC의 재정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두 수장의 해법은 사뭇 다르다. 사마란치는 방송중계권의 판매와 독점적 휘장사용권을 보장한 스폰서 기업의 유치와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IOC의 양적 성장을 일궈냈다. 이 결과 부유해진 IOC가 개최도시를 지원하고, 엄격한 IOC기준 아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개최도시를 선발할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토마스 바흐는 취임과 함께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했다. 올림픽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개혁안이었다. 그 방점은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적자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대회에는 성공하고 도시는 망한다'는 올림픽의 저주라는 속설이 생길 만큼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점차 줄고 있다. 바흐는 말했다. "IOC와 올림픽은 변해야 산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놓친다면 영영 뒤쳐져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의 개혁 골자는 올림픽 유치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회 개최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또한 2개 도시 또는 2개 국가 분산개최의 가능성을 열었고, 개최도시의 종목 추가권을 보장해주는 등 고객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올림픽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IOC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다.

광주가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할 때 이미 세계 스포츠계의 중심 화두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광역 호남권 분산개최를 통해서 시설비용을 최소화하고, 선수촌도 민간재건축방식을 택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는 이제 복지패러다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됐다. 스포츠 공간은 선수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시민과의 공유물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 신설경기장을 지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6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회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유니버시아드를 생각해본다.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완공되었고, 3천 7백여 가구 대규모의 선수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루하루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사이, 광주의 도시 전략에서 유대회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호남고속철(KTX) 개통으로 향상된 접근권을 자산으로 삼고, 올해 완공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안정적인 도시의 랜드마크로 삼아 스포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하는 '포스트 유니버시아드 아젠다 2020'이 나오면 어떨까. 인구 13만5천의 경북 김천시는 2006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지은 복합스포츠타운을 밑천 삼아 연간 30여개의 스포츠대회 개최와 80여개 팀의 전지 훈련장으로 스포츠 마케팅해 연간 2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이끌어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한다. 작은 도시이지만 흘려 볼 수 없는 사례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더 이상 그 자체로서의 재화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에 개최도시에게는 고도의 창조적 전략이 요구된다.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생각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이제 스포츠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다. 스포츠 대회를 통해 확보한 인적 물적 기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도시의 발전전략과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생각해야만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마란치와 바흐 두 수장의 응전 방식은 스포츠를 기반으로 도시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한 유용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광주의 응전이 필요하다.

법조칼럼

인신보호제도를 아시나요

김 민 지
변호사·법무법인 지드림

최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인신보호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인신보호제도를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신보호제도란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만 동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수용자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수용이 처음부터 위법하였던 경우, 만일 적법한 수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용기관에 수용할 이유가 소멸되었음이 인정되면 수용이 해제되어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수용자는 만일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만일 수용기관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수용기관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인신보호관이 위법수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인신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구제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되던 중 퇴원을 하였으나 그 즉시 다른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중 당초의 수용기관이 피수용자를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피수용자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위와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수용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를 운영(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고 있는 바, 아무쪼록 인신보호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社 說

개통하자마자 잇단 장애…불안한 KTX

호남선 KTX가 개통된 것은 지난 2일. 하지만 개통된 지 사흘도 못 돼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장애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저속철 및 비싼 운임 논란이 있어온 터에 이제 안전까지 염려할 상황이 됐으니 참으로 불안하다.

먼저 지난 2일 신형 KTX 515열차가 운행 중 워셔액 주입구 덮개가 개방돼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임시조치 후 목포역에 19분이나 지연 도착했다. 원인은 차량제작사(현대로템)에서 고정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접착제를 발라 완성해야 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제작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덕지덕지 청테이프를 붙이고 달리는 첨단 시대의 고속 열차. 웃기는 일 아닌가. 열차는 익산역에 정차한 뒤에야 청테이프로 응급 고정한 뒤 다시 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테이프가 운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해당 열차는 저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일에는 신형 호남 KTX 511열차가 차량 지상 신호 수신장치 '순간 오작동'으로 하천 교량에서 3분간 정차, 시스템 재부팅 후 출발한 뒤 목포역에 4분 늦게 도착했다. 장애 원인은 고속선 신호장치 운행 구간에서 일반선 신호장치가 신호를 잘못 인식해 비상제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또 까치집으로 인한 합선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사고도 있었다.

KTX가 개통되자마자 차체가 파손된 채 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다. 속도를 이기지 못해 떨어져 나간 주입구 덮개가 마주 오던 KTX를 덮쳤다면 어쩔 뻔했는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코레일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KTX 제작 결함과 고속선 시공 하자에 대해 제작사 및 시공사 등에 강력히 대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죽음 내몬 대학사회의 빗나간 MT 문화

동아리 모임에 참가한 여대생이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대학사회의 일그러진 음주문화가 화를 부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 41분께 구례군 산동면 모 리조트 5층에서 광주 모 대학교 학생 A(21·여)씨가 음주 상태에서 방을 찾다가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한다. A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학생 170명과 함께 단과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MT)에 참석 중이었다. 이번 사고는 대학사회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선배들의 비뚤어진 음주문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단과대 내 동아리 6개가 함께 참여했지만 지도교수 등이 동행하지 않아 학교 측의 '안전 불감'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 등에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도 교수와 직원 참여는 기본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신학기에는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지면서 선배들의 강압적인 술 강요와 가혹행위, 성추행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러한 그릇된 풍토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말에는 광주에서 한 대학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 도중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기도 했다.

이제 대학사회는 지성의 전당답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후배 간 엄격한 위계질서부터 타파해야 한다. 신입생과 후배들도 선배들의 술 강요와 가혹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대학 측의 책임도 무겁다.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기본을 무시하고서도 동아리에 떠넘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학교 측도 이번 기회에 교수 동참을 정례화시키고 동아리 행사를 봉사활동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도 책임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특별감찰관

어느 시대에나 정권 실세들의 친인척은 권력을 휘둘렀다. 당연히 부작용이 많았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도 잇따랐다.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친인척들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의 양자를 사칭했던 '가짜 이강석 사건'까지 터졌을 정도다. 1957년 8월 당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씨와 얼굴이 빼닮은 강 모씨가 경북 경주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에게 "내가 이강석"이라고 사칭한데서 비롯됐다. 강 씨는 "양아버지인 이 대통령의 비밀 지시로 수해가 난 지역을 조사 중이다"라는 말로 서장을 속였다. 강 씨의 사기행각은 진짜 이강석의 얼굴을 아는 경북도시자에게 들통이 나면서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친인척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선시대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 이들 친인척의 발호를 막으려 한 것도 오늘날과 비슷했다.

태종 3년 11월, 태조의 이복아우인 의안대군 이화의 첩이 옹주 칭호를 받자 사간원 헌납(정5품 관직) 정안지가 "본처와 첩의 분수가 엄한 것이 도리인데 의안대군의 첩 매화는 원래 관에 딸린 기생(官妓)이면서도 외람되게 옹주의 칭호를 받았으니 처벌하소서"라고 탄핵하고 나섰다.

이에 분노한 태종이 정안지에게 "이 일은 네가 알 수 없는 것인데,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캐물었다. 정안지는 "제가 전하의 이목(耳目)을 맡는 관리가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말의 옳고 그름만을 살피실 것이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버텼다. 이에 태종은 "끝까지 캐면 네가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마는, 내가 용서한다"라며 물러섰다. 조선시대에도 종친들의 잘못된 행위는 탄핵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최근, 대통령 측근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막중한 자리다. 정안지와 같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기대한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